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최정순 · 김경희⁺*

예원예술대학교 뷰티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keup Behavior, Psychological Traits and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ortrait in Elderly Women

Jung-Soon Choi · Kyung-Hee Kim⁺*

Assistant Prof., Dept. of Beauty & Fashion of Design, Yewon Art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5. 7. 30 접수; 2015. 9. 14 수정; 2015. 9. 17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lderly women's makeup behavior, psychological traits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their preference for makeup images in daily life(hereinafter called general makeup image) and for the makeup images of their own future funeral portraits.

As for the method of research, a research study was implemented by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Seven factors were selected for makeup behavior: fashionability, conformity, subjectivity, instrumentality,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conspicuousness. The selected psychological traits were personality, death attitude and depression. Preference for general makeup image and for the makeup image of funeral portrait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four: agreeableness, refinement, individuality and dign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51 female elderly residents in and around Seoul who were in their 60s to 80s. Concerning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coefficient,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Concerning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women's makeup behavior, personality, death attitude, depress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 of funeral portrait, their preference for an agreeable makeup image was analyzed. Thus, makeup behavior, personality, death attitude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to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ortrai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help make makeup for funeral portrait entrenched as a part of the beauty industry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industry.

Key Words: Elderly(노인), Makeup behavior(화장행동), Funeral portrait(영정사진)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Kim
Tel. +82-2-920-7665, Fax. +82-2-920-2075
E-Mail: kim1023@sungshin.ac.kr

I. 서론

본문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망한다. 또한 사후에도 자신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가 받기를 원한다. 연령이 높아지면 죽음을 예측하여 누구나 영정사진을 준비하며,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경우 고인의 이미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기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죽음을 앞둔 이에게 있어서 축복 일 것이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준비해 두는 영정사진은 살아 있었던 동안에 본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하게 된다.

장미영(2012)은 영정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으며, 노년들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각자의 삶의 질에 따라 드러나는 감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기질과 그 동안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죽음의 태도 등 본인들의 내면이 표출되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영정사진 메이크업 방법은 달라지며, 평소에 했던 화장행동과 우울감 정도에 따라서도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는 달라진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는 시대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서은혜(2012)는 화장을 한 모습과 하지 않은 모습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화장을 한 모습은 자아감을 높이고 자기 개성을 실현하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상적인 이미지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임정미(2011)는 노년기 여성이 외모관리행동에 관심이 많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대인지향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 형태인 경우 화장 관심과 화장 후 기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연(2005)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해 자기만족지향과 자의식이 높은 집단 여성들은 화장 사회·심리적 기대감이 높을 뿐 아니라 화장행동과 자의식이 독립적이고 기대효과 또한

높다고 하였으며,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최수경, 강경자, 2007)에서는 대인지향형일수록 화장의 대인지향이 적극적으로 상승하고 기분전환, 자신감 증대, 긴장해소 등이 화장심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경복(2014)은 외모 관심도에는 신체적 자기 효능감의 역할이 크고 외모관리 행동에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고, 이해원, 김미영(2007)은 의복과 더불어 헤어도 자기 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상징적 의미가 높고 심리 효용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장을 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게 한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노년여성의 화장행동에 따른 영정사진 이미지 선호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평소의 품성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죽음을 예측하여 준비하는 태도 및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장행동과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노년여성의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노년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원진, 김정옥, 2003),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최수경, 강경자, 2007), MBTI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박선희, 2008), 노년기 여성의 화장관심과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임정미, 2011)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장과 화장의 심리에 관한 연구로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를 적용하여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노년의 화장행동과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60대 이상의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행동과 심리적특성인 성격, 우울감, 죽음태도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여성들의 화장행동과 화장이미지 선호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노년 화장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 화장이미지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간에 상관성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와 일반 화장 이미지에 대하여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를 자유진술식으로 노년여성 20명에게 2014년 6월1일에서 6월5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정사진 이미지를 평가하는 형용사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 문항 개발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6월15일에서 7월10일에 걸쳐 서울의 노인대학 3곳, 노인복지관 17곳, 노인정 25곳에 연구요원을 보내어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노년여성이 있는 곳은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읽을 수 없는 노년여성이 있는 곳은 연구요원이 일대일로 읽어주면서 설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설문을 받아 적는 방법을 같이 이용하였다. 680부 배부 중 665부가 수거 되었으며 그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총 651부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거주지,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학력, 소득, 외모관리

비, 결혼여부, 가족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영정사진 선택 특성은 영정사진 선택 사항과 영정사진 준비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2.8세이며 최소 60세에서 최대 89세로 구성되었다. 60대가 259명(39.8%), 70대가 206명(31.6%), 80대가 186명(28.6%)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72.8세로 ± 8.3 세였다. 거주지별로는 전체 대상의 95.9%가 서울지역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이 142명(21.8%), 중이 276명(42.4%), 하가 233명(35.8%) 수준이었다. 이들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11명(17.1%)이며, 종교는 전체 대상자의 43.0%가 없었고, 학력 분포는 초등졸 이하는 265명(40.7%), 중졸이 128명(19.7%), 고졸이 177명(27.2%), 대졸 이상은 81명(12.4%)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223명(34.3%), 100~200만원 미만은 170명(26.1%), 200~300만원 미만은 131명(20.1%), 300만원 이상은 127명(19.5%)으로 구성되었다. 외모관리비는 10만원 미만이 347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20만원은 171명(26.3%), 20만원~30만원은 85명(13.1%), 30만원 이상은 48명(7.4%)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26명(4.0%), 기혼이 625명(96.0%)으로 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 일인세대가 145명(22.3%), 부부세대는 193명(29.6%), 배우자와 자녀는 154명(23.7%), 배우자와 손·자녀는 126명(19.4), 기타는 33명(5.1%)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60세 이상의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화장이미지 선호, 인구통계적변인 및 영정사진 선택 특성의 6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수는 129 문항이었다.

화장행동은 백경진, 김미영(2004), 최수경(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성, 유행성, 대인지향, 동조성, 주관성, 과시성, 자존감의 7가지 요인이 포함되었고, 성격유형은 John, Srivastava (1999), Costa et al.(1992), Gosling et al.(2003), 김지현 외(2011)에서 사용되었던 BFI의 요인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구분하였다.

죽음태도는 Wong et al.(1994), Hoelter(1979),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회피,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도피적 수용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우울감은 기백석(1996), 정인과 외(1997), 엄인숙(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정서적 불안감, 불행감, 신체적 약화,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활동 저하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화장이미지 선호는 Graham, Kligman(1984),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이미지와 예비조사의 질문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고, 수정 보완하여 세련성, 품위성, 호의성, 개성의 4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 죽음태도, 우울감,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Duncan의 다중비교를 통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 화장행동,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1)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주관성($r=.310, p<.001$)과 대인지향($r=.191, p<.001$)과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유행성($r=-.186, p<.001$), 동조성($r=-.125, p<.01$), 자존심($r=-.109, p<.01$), 과시성($r=-.216, p<.001$)과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유행성($r=-.083, p<.05$), 과시성($r=-.147, p<.001$)과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주관성($r=.248, p<.001$), 대인지향($r=.190, p<.001$)과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유행성($r=.225, p<.001$), 동조성($r=.152, p<.001$), 도구성($r=.096, p<.05$), 자존심($r=.191, p<.001$), 과시성($r=.161,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주관성($r=-.085, p<.05$)과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유행성($r=.157, p<.001$), 동조성($r=.105, p<.01$), 대인지향($r=.143, p<.001$), 자존심($r=.292, p<.001$), 과시성($r=.102, p<.05$)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김

<표 1>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화장이미지		화장행동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심	과시성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	호의성	-.186***	-.125**	.310***	.065	.191***	-.109**	-.216***
	세련성	-.083*	-.072	.248***	.053	.190***	.022	-.147***
	개성	.225***	.152***	-.085*	.096*	.058	.191***	.161***
	품위성	.157***	.105**	.064	.061	.143***	.292***	.102*

* $p<.05$ ** $p<.01$ *** $p<.001$

명리, 김주덕(2005)의 연구에서 화장을 하면 사회적 대인지향을 원만하게 이끌어 준다고 하였는데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의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이미지를 선호하는 노년여성들이 대인지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도 평소의 화장행동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방성의 경우는 호의성($r=.089, p<.05$), 세련성($r=.128, p<.01$), 개성($r=.139, p<.001$), 품위성($r=.115, p<.001$)의 모든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와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지만, 신경증은 호의성($r=-.168, p<.001$)과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품위성($r=.134, p<.01$)과는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성실성의 경우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호의성($r=.167, p<.001$) 및 세련성($r=.195, p<.001$)과 정의 상관성을 보이며, 친화성의 경우는 품위성($r=-.090, p<.05$)과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성을 가지며, 호의성($r=.262,$

$p<.001$) 및 세련성($r=.172,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외향성의 경우는 호의성($r=.085, p<.05$)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염인경, 김미숙(2004)은 내성형의 성격이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성실성의 경우 호의성과 세련성을 선호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보여 진다.

3)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죽음의 중립적 수용($r=.386,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고,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죽음공포($r=.079, p<.05$), 죽음회피($r=.104, p<.01$), 중립적 수용($r=.234,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도피적 수용($r=-.095, p<.05$)과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죽음공포($r=.159, p<.001$), 죽음회피($r=.220, p<.001$)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죽음공포($r=.237, p<.001$), 죽음회피($r=.252, p<.001$)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이미지 선호		성격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영정사진 화장	호의성	.089*	-.168***	.167***	.262***	.085*
	세련성	.128**	-.040	.195***	.172***	.057
	개성	.139***	.045	-.021	.023	.073
	품위성	.115***	.134**	.073	-.090*	.019

* $p<.05$ ** $p<.01$ *** $p<.001$

<표 3>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이미지		죽음태도				
		죽음공포	죽음회피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도피적수용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	호의성	-.039	-.008	.056	.386***	-.053
	세련성	.079*	.104**	-.031	.234***	-.095*
	개성	.159***	.220***	-.018	-.046	-.034
	품위성	.237***	.252***	-.010	-.042	-.014

* $p<.05$ ** $p<.01$ *** $p<.001$

〈표 4〉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이미지		우울감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 선호	호의성		-.239***	-.109**	-.160***	.007	-.279***
	세련성		-.201***	-.092*	-.002	.015	-.132**
	개성		-.063	-.045	.096*	-.082*	.022
	품위성		.029	-.070	.139***	.061	.048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이은주(2013), 김지현, 민정환(2010)의 노년기 적응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기 적응과 안녕감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4)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불행감($r = -.239, p < .001$), 인지기능 저하($r = -.109, p < .01$), 정서적 불안감($r = -.160, p < .001$), 사회적 활동 저하($r = -.279, p < .001$)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불행감($r = -.201, p < .001$), 인지기능 저하($r = -.092, p < .05$), 사회적 활동 저하($r = -.132, p < .01$)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정서적 불안감($r = .096, p < .05$)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고, 신체적 약화($r = -.082, p < .05$)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정서적 불안감($r = .139, p < .001$)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견희, 한보현(2012)의 연구에서 화장을 통해 외모를 아름답게 짧게 보임으로 인하여 외모에 자신감을 주고 우울감을 해소해준 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정사진화장이미지를 본 것으로 노년여성들은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에서 개성과 품위성을 선호하며 정서적 불안감이 낮을수록 영정사진에서 호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화장과는 영정사진화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호의성 31.9%, 세련성 19.4%, 개성 15.4%, 품위성 19.0%로 나타났다.

호의성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에서는 소득($\beta = .167, p < .001$)과 사회경제적 수준($\beta = .086, p < .05$)이 높을수록 영정사진의 호의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졌다. 화장행동 중에서는 과시성($\beta = .127, p < .01$), 유행성($\beta = -.119, p < .01$)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의 주관성($\beta = .107, p < .01$)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에서는 친화성($\beta = .149, p < .001$)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죽음태도 중에서는 중립적 수용($\beta = .322, p < .001$), 죽음회피($\beta = .074, p < .05$)가 강할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접근적 수용($\beta = -.137, p < .001$)이 강해질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며, 우울감 중에서는 사회적 활동 저하($\beta = -.195, p < .001$)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

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30.042, p<.001$).

세련성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외모관리비($\beta = .139, p<.001$)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 졌으며, 화장행동 중에서는 과시성($\beta = -.175, p<.001$)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행동 중 과시성($\beta = .132, p<.01$)이 높을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에서는 성실성($\beta = .112, p<.01$)이 높을수록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죽음태도 중에서는 죽음회피($\beta = .114, p<.01$), 중립적 수용($\beta = .235, p<.001$)이 강해질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접근적 수용($\beta = -.176, p<.001$)이 강할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중에서는 정서적 불안감($\beta = .115, p<.01$)이 높아질수록 세련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행감($\beta = -.105, p<.01$)과 사회적 활동저하($\beta = -.090, p<.05$)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5.4227, p<.001$).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학력이 높고($\beta = .149, p<.001$), 거주지가 서울($\beta = .083, p<.05$)인 경우, 외모관리비($\beta = .122, p<.01$)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졌다. 화장행동 중 유행성($\beta = .124,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성격 중 개방성($\beta = .111,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beta = .153, p<.001$)가 높을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도피적 수용($\beta = -.101,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중 정서적 불안감($\beta = .095, p<.05$)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졌다($F=14.663, p<.001$).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소득($\beta = .091, p<.05$)과 외모관리비가 높을수록($\beta = .173, p<.001$) 영정사진의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거주지가

서울일수록($\beta = -.088, p<.05$)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에서는 자존심($\beta = .194, p<.001$)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성격은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beta = .176, p<.001$)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도피적 수용($\beta = -.106, p<.001$)이 높아질수록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울감 중에서 신체적 약화($\beta = .112, p<.01$)가 높을수록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0.382, p<.001$).

이는 노선옥(2011)의 연구에서 품위성, 단정한, 자연스러운 화장이미지를,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도 일반화장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은 60~80대 노년여성 651명이었다.

노년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의성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장행동 중 유행성, 과시성, 죽음태도 중 접근적 수용, 우울감 중 사회적 활동 저하 경향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 성격 중 친화성, 화장행동 중 주관성,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 중립적 수용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호의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련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장행동 중 과시성, 죽음태도 중 접근적 수용, 우울감 중 불행감, 사회적 활동 저하의 경향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을 선호하지 않

았으며, 외모관리, 성격 중 성실성, 화장행동 중 주관성, 죽음태도 중 중립적 수용, 죽음회피, 우울감 중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세련성을 더 선호하였다.

개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죽음태도 중 도피적 수용의 경향이 강할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학력,

외모관리,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성격 중 개방성, 화장행동 중 유행성,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 우울감 중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개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품위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죽음태도 중 도피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을 선

〈표 8〉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5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2	
호의성	인구통계적변인	소득	.090	.167	4.340***	R2=.319 F=30.042***	
		사회경제적 수준	.065	.086	2.276*		
	화장행동	유행성	-.116	-.119	-2.924**		
		과시성	-.122	-.127	-3.187**		
		주관성	.117	.107	2.791**		
	성격	친화성	.155	.149	4.236***		
		죽음태도	죽음회피	.074	.074		2.120*
			접근적 수용	-.171	-.137		-3.608***
	우울감	중립적 수용	.378	.322	8.079***		
		사회적 활동 저하	-.180	-.195	-5.711***		
세련성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관리비	.103	.139	3.752***	R2=.194 F=15.4227***	
	화장행동	과시성	-.152	-.175	-4.494***		
		주관성	.132	.132	3.043**		
	성격	성실성	.099	.112	2.774**		
		죽음태도	중립적 수용	.249	.235		5.420***
			접근적 수용	-.199	-.176		-4.271***
	우울감	죽음회피	.114	.125	3.363**		
		정서적 불안감	.101	.115	2.777**		
		불행감	-.102	-.105	-2.668**		
	사회적 활동 저하	-.075	-.090	-2.229*			
개성	인구통계적 변인	학력	.071	.149	3.781***	R2=.154 F=14.663***	
		거주지(서울)	.262	.083	2.265*		
		외모관리비	.081	.122	3.071**		
	화장행동	유행성	.099	.124	3.098**		
		성격	개방성	.082	.111		2.898**
	죽음태도	죽음회피	.125	.153	3.823***		
		도피적 수용	-.087	-.101	-2.676**		
우울감	정서적 불안감	.076	.095	2.463*			
품위성	인구통계적 변인	거주지(서울)	-.327	-.088	-2.399*	R2=.190 F=20.382***	
		외모관리비	.136	.173	4.554***		
		소득	.048	.091	2.372*		
	화장행동	자존심	.178	.194	4.845***		
		죽음태도	도피적 수용	-.109	-.106		-2.884**
	죽음회피		.171	.176	4.458***		
	우울감	신체적 약화	.111	.112	3.096**		

* $p < .05$ ** $p < .01$ *** $p < .001$

호하지 않았으며, 외모관리, 소득, 화장행동 중 자존심,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 우울감 중 신체적 약화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품위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노년대학, 노인정, 노년복지관을 다니는 노년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노년여성 전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노년기의 노화 과정과 적응 정도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며, 설문지를 사용하여 단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년여성에게는 형용사를 선택하는 부분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넷째, 현대에 들어서 화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의미 있게 행해지고 있으며, 영정사진 이미지 또한 노년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년남성에게도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에 노년여성과 노년남성의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조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여섯째, 화장이미지를 이미지맵으로 하여 이미지에 맞는 화장을 노년여성들에게 제시하여 선호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년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35(2), 198-307.
- 김명리, 김주덕. (2005). 화장행동이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화장품학회지*, 13(1), 127-134.
- 김지현. (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4(1), 11-27.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노선옥. (2011). *대인지향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8). MBTI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3), 196-203.
- 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행동과 영향 변인연구 : 의복관여도, 연령, 얼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892-903.
- 서은혜. (2012). *자기애성형,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인숙. (2008).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중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연경, 김미숙. (2004).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1045-1059.
- 이건희, 한보연. (2012). 화장이 노년기 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패션과 니트*, 10(2), 57-65.
- 이은주. (2013). *노년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진, 김정옥. (2003). 노년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45-60.
-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 김미영. (2007). 의복관여에 따른 헤어관여와 헤어태도의 차이 및 헤어 실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69-83.
- 임경복. (2014). 뉴 실버세대의 자기효능감과 외모 관심이 외모관리행동과 의복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2), 163-175.
- 임미연. (2005). 화장행동과 헤어칼라 및 자의식이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121-135.
- 임정미. (2011). 노년기 여성의 화장관심과 화장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7(2), 189-196.

- 장미영. (2012). 영정사진 찍는날 -문순태 대나무꽃이 피다. *연린전북*, 154, 60-64.
-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 (1997). 한국형 노년 우울검사 표준화 연구. *노년정신의학*, 1(1), 61-72
- 최수경. (2007). 성인여성의 인구 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특성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7(8), 60-74.
- 최수경, 강경자. (2007).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3(1), 155-162.
- Costa, P., McCrae, T. & Robert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504-528.
- Graham, J. A., Kligman, A. M. (1984). Cosmetic therapy for the elderly. *J. Soc. Cosmet. Chem*, 35(14), 133-145.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5), 996-999.
- John, O. P., Srivastava, S. (1999). Th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2, 102-138.
- Wong Paul, T. P., Reker, G. T. & Gesser, G. (1994).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DAP-R) :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s death. *Aging and Health Care*, 4(2), 121-148.